

# 東아시아의 平和와 安定

— 韓半島의 周邊情勢를 中心으로 —

崔 鍾 起

<目 次>	
I. 序	IV. 韓半島統一의 問題點
II. 韓半島와 4強	V. 韓半島의 安保問題
III. 韓半島에서의 北韓의 軍事戰略	VI. 結 論

## I. 序

1910년 韓·日合併이 이루어짐으로써 2천년이상 계속되어 오던 自主國家로서의 전통은 단절되었고, 韓國의 文化와 民族主義는 무자비하게 억압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말기의 協定에 의하여 韓半島의 分割이 劃策되었으며, 이에 따라, 蘇聯軍은 工業化된 北韓地域에 진주하게 되었으며, 美軍은 農業地域인 南韓을 점령하였다. 또한 自由選舉에 의해서 統一이 되는 대신에 남·북한에 적대정부가 수립되었다.<sup>(1)</sup>

소련의 지원을 받은 金日成은 1945년 9월에 소위 朝鮮人民民主共和國의 수반이 되었고, 美國이 지지하는 李承晚박사는 1948년 8월에 大韓民國의 大統領이 되었다. 1950년 6월 北韓은 武力南侵을 전개하였으나, 美軍이 투입되고 中共軍이 介入됨으로써, 1953년 7월 休戰을 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2)</sup>

南·北韓은 休戰線을 境界로 전면 對峙하고 있으며, 緊張이 常存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따금씩 非武裝地帶에서 計算된 攻擊의 형태로 紛爭이 야기되며, 또한 近海에서 北韓이 돌발적으로 긴장을 강화시키곤 한다. 가장 커다란 危險은 南韓에서의 政治的 不安과 體制를 둘러싼 意見對立을 잘못 인식하거나, 또는 美國이 아시아의 紛爭에 不介入할 것이라고 誤判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事態라고 하겠다.<sup>(3)</sup>

(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sia Yearbook 1985*, Hong Kong, 1985, p. 173.

(2) Claude A. Bus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for Policy*, Hoover Institution Press, Stanford, 1982, pp. 66-67.

(3) Richard L. Sneider, "Prospects for Korean Security," in Richard H. Solomon, ed., *Asian Security in the 1980s: Problems and Policies for a Time of Transition*, Oelgeschlager, Gunn & Hain, Publishers, Inc., Cambridge, Mass., 1980, p. 109.

33년여 동안 유지되어온 불안정한 平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韓國軍과 美軍이 效果的으로 對應한 결과이며,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4強(美·日·蘇·中)사이의 勢力均衡과, 이러한 4強이 第2의 韓國戰이 발발할 경우의 엄청난 희생과 비용을 고려하여, 한반도를 위요한 새로운 敵對行爲를 방지해온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4強의 戰略的 利益은 韓半島에서 맞닿고 있다고 하겠다.

南·北韓은 韓國戰이후 궁극적인 再統一을 闡明하고 있으며, 상호 적대감과 의구심으로 대 처하고 있다. 1953년 이후 美國은 條約에 의하여 韓國防衛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sup>(4)</sup> 이것이 日本防衛를 保障하는 데에 핵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961년 이후 中國과 蘇聯은 조약에 의하여 北韓防衛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오늘날 兩國이 對北韓의 影響力 行使에 競爭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中國은 北韓을 自國 安保의 핵심적인 緩衝地域으로 여기고 있으며, 소련은 북한이 蘇聯의 極東地域의 安保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5)</sup>

4強과 南·北韓을 포함한 6者間의 勢力關係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화약고(tinder boxes)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다.<sup>(6)</sup> 따라서 本稿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東아시아의 安定을 조망하기, 北韓의 軍事戰略, 최근의 南北對話 및 統一의 論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協商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I. 韓半島와 4強

美·蘇의 對峙關係와 和解무드, 中·蘇의 冷戰과 緊張緩和가 아시아 安保의 주요因子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要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東北亞地域이라 하겠다. 따라서 아시아에 不安定한 지역이 존재하고 諸國家間의 不均衡이 존재하는 한 美軍의 駐屯은, 이 지역의 戰略的均衡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1970년대 에 들어서면서 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력은 점차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지역을 무대로한 軍事活動은 보다 활발해 졌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와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아시아에서의 軍事力의 增強과 軍事活動의 민활한 전개는 최소한 蘇聯의 領土를 美國이나 中共의 공격으로부터 防衛하려는 것과, 海洋封鎖를 저지할 能力을 기르려는 것으로 인식된다. 더 나아가서 우월한 軍事力을 배경으로 同地域에서의 政治的 影響力의 增大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sup>(7)</sup>

(4) Claud A. Buss, *op. cit.*, p. 67.

(5) A. Dak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7, p. 307.

(6) *Ibid.*, p. 308.

(7) Taku a Kubo, "Security in Northeast Asia," Solomon, ed., *Asian Security in the 1980s*, *op.*

中國은 등소평의 리더쉽하에 4大近代化를 추진하였고, 외부세계의 전개로부터 獨自의인 位置를 차지하려하고 있다.

中國의 對外政策은 近代化를 위한 안정적, 평화적인 國際環境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美國과의 經濟協力 擴大가 合意되었고, 중국과 미국사이에 미국의 군사기술의 移轉과 같은 制限的 軍事協力이 合意되었다. 소련의 군함에는 허용되지 않는 中國의 항구에 미국의 艦隊가 정박하기 위한 준비도 마련되었다.<sup>(8)</sup>

그러나, 中國은 소련과의 關係改善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次官級 會談이 長官級 회담으로 格上되었고, 貿易이 增進되었으며, 경제·기술협력을 포함한 몇 가지 協定이 締結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더욱 蘇聯指向의 性向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中國으로 하여금 1984년 1월 10일 趙紫陽首相의 美國 방문시, 3者會談(美·南·北韓)을 제안하도록 요청했으며<sup>(9)</sup>, 이로써 中國으로 하여금 3者會談을 지지케 하고, 中國을 仲介)者로 이용하여 「와싱턴」의 反應을 확인코자 하였다. 「레이건」 미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4者會談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했으며, 북경은 북한의 3者會談을 지지했다. 한국 또한 이것을 수락하지 않았고, 북한이 거부한 南·北韓兩者會談을 강조했다. 북한은 또한 日本에의 접근을 시도하였고, 소련과 중국의 남한과의 關係改善에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너무 빨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이루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西歐의 資本과 技術에 문호를 개방해야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美國과의 관계를 포함한 對外政策의 強硬路線을 완화시키게 되었으며, 對南韓關係에도 유화 정책을 표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北韓의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戰術上의 것이라고 보고, 일시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sup>(10)</sup>

소련의 새지도자 「미하엘 고르바초프」는 1985년 11월 「레이건」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의 프랑스 방문은 자신감을 과시하고 서방세계에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려는 시도였다. 外務長官이 「그로미코」를 「세바르나제」와 代置하여 과거의 對外政策에서 탈피함으로써 그 자신의 權力地位는 놀랍게 공고화되었다. 1969년에 「브레즈네프」(Brezhnev)가 제안하고 印度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이 거부한 바 있는 提案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集團安全 保障體制를 「고르바초프」는 提案했다.

소련의 중국에의 接近方法은 다양화되었고 그래서 성공적이었다. 兩國의 經濟協力은 더욱 互惠적이고 重大한 것이되었다. 中國은 여전히 관계정상화를 위한 3개의 先行條件을 주장하고 있으며, 소련은 특히 조건중의 하나, 즉 국경지대의 군사력감축을 충족시키려는 의

*c t.*, p. 97.

(8) *Asian Security 1985*,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Tokyo, 1985, p. 10.

(9) Young C. Kim, "North Korean Foreign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January-February, 1985, p. 11.

(10) *Asian Security 1985*, *op. cit.*, p. 12.

사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나머지 2개의 先行條件, 즉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군사원조 중단과, 「아프카니스탄」에서 소련군대의 철수를 충족시키는 것은 조만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1)

미국의 한국에서의 安保利益은 직접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첫째, 韓國戰을 포함한 美國의 한국에의 관여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즉 이지역에서의 미국의 철수는 아시아의 安全保障에 대해 미국의 不介入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東아시아에서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 共產政權이 들어서게 되면, 東아시아에서의 勢力均衡이 파괴될 것이며 장기적 단계적 차원에서 커다란 불안정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슐츠」(George Shultz) 美國務長官은 1986년 2월 1일 韓半島에서 美國의 존재는 결정적 의미를 가지며, 특히 향후 3년 동안은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12)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美國의 安保上の 利益은, 美國의 日本에 대한 安保公約의 이행을 위해 중요성을 띠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安保利益은 不可分の 것이며, 어느 한 국가의 個別的인 問題라기 보다는 東北亞라는 觀點에서 이해되어진다. (13)

이와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강대국들은 자국들의 이익에 빛추어 한반도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기반을 갖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공통된 최소한의 목표로써, 現狀維持나 한국에서의 敵對行爲防止를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蘇聯은 자국의 美國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北韓에 대한 자국의 統制力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共產主義國家로의 한국의 再統一을 바랄 것이다. 반면에 美·日은 자국에 희생이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反共國家로서의 韓國統一을 지지할 것이다. (14)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政策目標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地域國家들과 미국의 정치·경제·안보·문화의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美國의 總貿易의 32%는 이지역과의 交易이고, 미국 陸軍의 25%는 이지역에 파견되어 있다. 둘째는, 이지역에서 소련의 政治·經濟·軍事的 擴大를 抑止하는 것이다. 셋째는, 「캄보디아」에 대한 월맹의 지배를 증식시키는 것이다. 넷째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베트남」에서의 美軍生存者를 확인하는 것이다. (15)

「레이건」의 對蘇 協商記錄에 따르면, 「레이건」 美大統領은 「고르바초프」 蘇共產黨書記長

(11) *Ibid.* p. 14.

(12) Secretary of State George Shultz said Feb. 19, 1986 in the Senate Budget Committee that South Korea continued to its security from the Communist north. Tension on the peninsula remained high and continued. U.S. presence and support were "crucial," especially over the next three years. *The Korea Herald*, Feb. 26, 1986.

(13) Sneider, "Prospects for Korean Security," *op. cit.*, pp. 111-112.

(14) *Ibid.* p. 112.

(15) *President Reagan's Summit Meeting in Geneva*, November 19-20, 1985, *Briefing-Book*, The Heritage Foundation, 1985, p. 24.

에게 이지역의 安定을 파괴하지 말도록 경고하였고, 미국이 이지역의 同盟國에 대한 위협에 對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일본·태국·「필리핀」의 防衛에 대한 미국의 公約을 재확인 하였으며, 「고르바초프」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고 남북대화를 계속하도록 설득하기를 촉구하였다. (16)

### III. 韓半島에서의 北韓의 軍事戰略

북한정부는 駐韓美軍을 統一의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남한에서의 美軍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남한에서의 美軍撤收없는 남한의 “人民民主政府” 또는 “애국적·민중세력”에 의한 정부의 수립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南韓에서의 美軍撤收는 北韓의 外交政策의 1차적인 目標가 되었다. (17)

북한의 남한에 대한 侵略은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推測할 수 있다. (18)

① 미군 또는 제 7함대가 유럽과 중동으로 배치되고,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미군의 능력이 약화되어서 極東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② 남한에서 경제·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 정치적 위기가 생기는 경우, ③ 북한에서 국내적 혼란이 발생하여 지도층이 남한침공에 의하여 이것을 해결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의 軍事戰略은 定規·非定規, 戰略과 선제기습 및 대량공격전술을 혼합하고 있다. 북한은 1962년 채택된 4大軍事路線을 실천하고 있다. 즉, ① 全人民의 武裝化, ② 全國土의 要塞化, ③ 全軍의 幹部化, ④ 全軍의 現代化가 그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1970년 이래 북한은 대량선제기습공격을 강행할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으며, 수도서울지역과 漢江 以北지역에 집중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3일 이내에 戰爭을 결정지을 전략을 취했다. (19) 이와같이 북한은 速戰速決戰略을 갖고 있다. 이것은 “速決은 戰爭과 政爭에 요청되는 것이며, 모든 국가 모든 시대에 요구되는 사실”이라는 毛澤東理念에서 원용된 것이다. (20) 金日成은 全軍現代化目標를 추구하여 空軍, 「미사일」, 「탱크」의 增強을 꾀했으며, 正規軍의 移動性を 증대시켰다. (21) 북한은 꾸준히 現代科學과 技術을 통한 武器開發에 주력하였으며, 이로써 火力和 兵力의 移動性의 改善을 추구해 왔다. (22)

(16) *Ib id.*, p. 24.

(17) Y. ung C. Kim, “North Korean Foreign Policy,” *op. cit.*, p. 9.

(18) Kinro Shimamoto,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ymposium Papers on Security, Peace and Survival: East Asia and International Order in the 1980s, co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and the *Yomiuri Shimibun*, November 30-December 4, 1981, Tokyo, p. 9.

(19) 김태환, “김일성전략의 일반적 연구”, 북방연구논총(동북아연구지), Vol, 1, No. 1. (1975 겨울), p. 94.

(20) *Selected Military Writings of Mao Zedong*, p. 143.

(21) 김태환, *op. cit.*, p. 90.

(22) *Id id.*, pp. 92-93.

그런데, 만약 북한의 이러한 戰略이 먹혀 들어 간다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擴戰을 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초기의 승리를 근거로 보다 유리한 戰略的 據點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政治的 協商을 제기함으로써, 美軍과 다른 韓國의 友邦의 介入을 차단시키려 할 것이다. 北韓의 指導層은 ‘政治·軍事混合戰略’ 또는 “先占領, 後協商政策”으로 부터 많은 것을 배워 오고 있다. (23)

#### IV. 韓半島統一의 問題點

한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國家目標의 하나로써 統一을 들어왔다. 全斗煥大統領은 韓民族의 統一念願을 강조하였으며 1981년 1월 12일 “남·북한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제의를 하였다. (24)

북한당국은 통일문제에 중대하고 급박하게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공언한 민족적 과제는 통일과 북한의 “解放”이다. 북한의 대부분의 對內外政策은 이러한 目的을 지향한 것이다. 북한 지도층은, 통일노력은 세가지 路線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은 外部의 介入 없이, 平和의 手段에 의하여, 사상 이념·사회체제를 초월하여 하나의 民族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3개의 노선은 1972년 7월 4일 南·北共同聲明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25)

남한의 基本統一方案은 “선 평화, 후 통일”이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인 성격의 것이다. (26) 따라서 한국의 平和共存은 필요한 첫째 단계로 인식되어야 하고, 남북한의 完全한 再統一 이전에 이것이 制度化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남한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政治學的 견지에서 보면 “機能主義” 또는 “漸進主義”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 (27)

남한은 전쟁위험의 제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緊張緩和에 의한 전쟁억제가 첫째의 필요사항이며, 다음단계는 양측이 장기간의 不信과 誤解를 제거하고, 平화를 정착시킨 기반위에 이 정치문제를 다루어 통일로 나아간다는 논리이다. (28)

이에 비해 북한의 기본통일방안은 “선 통일, 후 평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전략은,

(23) 최영, “북한의 군사적 태도”, 한국일보, 1977. 2. 4, p. 3.

(24) *The Korea Herald*, January 13, 1981.

(25) *Korea Times*, July 5, 1972. Young C. Kim, “North Korean Foreign Policy,” *op. cit.*, p. 13. 「남북대화」, 문화공보부, 1973.

(26) Young-Whan Kihl, “Evolving Inter-Korean Relations: Security Diplomacy and Peace,” Prepared for the 6th Joint Conference of the KPSA and Scholars in North America, held in Seoul on August 5-7, 1985.

(27) Selig Harriso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n Franklin B. Weinstein, ed., *U.S.—Japan Relations and the Security of East Asia*,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8, p. 192.

(28) Goran McCromack, “The Reunification of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Pacific Affairs*, Feb. 1982, pp. 5-31.

한국에 주둔하는 美軍이 통일의 장애물이고 북한의 안전에 대한 가장 커다란 위협이라는 인식에서 통일구실을 이용하여 한국에 駐屯하는 미군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북한은 통일이 韓民族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가능한한 빨리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북한은 또한 한반도에 통일이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0년 10월에 열린 勞動黨全黨大會에서 평양측은,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국호하에 양측의 政治的 統合 이전에, 연합군의 편성과 공동외교정책을 실시하자는 지극히 비현실적 주장을 하였다.<sup>(30)</sup>

양측의 接近方法이 조화될수 없는 것이지만, 남·북한간의 주장에는 몇몇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양측은 統一을 가장 至高한 목표로 여기고 있으며, 통일문제는 國內政治問題이고, 통일은 원칙적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이룩되어야 하며, 양측사이에는 많은 不信과 誤解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sup>(31)</sup>

남·북한이 내세운 統一方案에는 몇몇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통일의 接近方法의 差別이다. 남한은 점진주의 방식을 주장하나, 북한은 급격한 政治的 統一을 주장한다. 남한은 우선적으로 南·北韓關係 정상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먼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수립을 주장한다. 북한은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이 수립되기 전에는 남·북한간의 協力과 交流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32)</sup>

둘째는, 통일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차이점이다. 남한은 통일후의 정책은 통일정부에서 맡기고 있으나, 북한은 소위 統一國家에 관한 “10個項 計劃”<sup>(33)</sup>을 주장한다.

셋째는, 통일국가의 性格과 構成에 대한 差異이다. 남한은 民族主義, 民主主義, 自由, 個人主義 理念을 추구하는 “完全하고 中央集權的”인 統一民主共和國의 수립을 추구하고, 북한은 “不完全한 聯邦制” 統一을 주장한다.

(29) Young-Shan Kihl, “South Korea Unification Policy in the 1980s: An Assessment,” Kwak Jae-hwan et al. ed.,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 and Approach*, Seoul: Kyongnam University Press, 1984, pp. 23-47.

(30) Yong Soon Yim, “Issues and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op. cit.*, pp. 85-101.

(31) *Ibid.*

(32) *The Pyongyang Times*, October 11, 1980.

(33) *Ibid.*

- (1) to maintain independence and enforce self-reliant policies.
- (2) to enforce democracy.
- (3)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
- (4) scientific, cultural and educ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 (5) reopen the suspended transport and communication.
- (6) stabilization of livelihood of the working populace.
- (7) elimination of the military confrontation.
- (8)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Korean residents overseas.
- (9) unified coordination of external activities.
- (10) enforcement of a peace-loving external policy.

넷째는, 統一을 달성하는 手段과 統一過程에서의 參與의 範圍에 관한 차이이다. 남한은 民主的 절차를 주장하여, 각 지역의 시민의 견해를 代表하는 民族統一協議會議을 주장한다. 북한은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하고, 통일과정에서 참여에 특정 個人과 團體를 배제한다.<sup>(34)</sup>

다섯번째는, 한국에 있는 外國軍에 대한 견해차이이다. 남한은, 미군주둔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초가 되며, 남·북한간의 軍事均衡은 평화통일의 우호적 조건 조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남한에 미군의 주둔은 통일의 장애로 보기때문에 격렬하게 반대한다.

여섯째는 U.N. 加入問題에 관한 차이이다. 남한은 남·북한이 개별적 실체로서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이름으로 하나의 실체로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5)</sup>

## V. 韓半島의 安保問題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첫째, 「모스크바」의 기본 전략적 이익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소련과 접한 한반도의 位置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군사적 모험 성향이 한반도 안보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그리고 셋째로, 한국과 미국과의 防衛關係가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 소련의 SS-20 중범위 핵「미사일」 162기 이상이 日本과 東北아시아를 강타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되었다.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지역의 海·空軍力은 900척 이상의 함선과 2,000대 이상의 전투기에 달하며, 그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sup>(36)</sup> 아시아를 겨냥한 소련의 SS-20 핵「미사일」과 같은 것은 한반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소련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은 한반도의 位置뿐만 아니라 소련의 極東戰略의 地理的 여건에서 비롯된다. 병참업무상의 어려움과, 그 기본구조의 성격, 그리고 소련의 지역 극동의 나쁜 기후조건 때문에 소련의 군사적 위치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관심사는 물론 소련과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또 그것에 의해 복잡해졌다. 소련이 아시아에서 얻고자 하는것은 美國同盟體制

(34) Suk-ryul Yu, "Unification Strategies of South and North Korea,"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co-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and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eoul, Korea, December 16-18, 1985, p. 21.

(35) *Ibid.*, p. 22. North Korea argues that separate entrance of the U.N. by South and North Korea would be defects recognition of a permanent division of Korea.

(36) Richard L. Armitage, Assistant Defense Secretary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isclosed on January 18, 1986, in a speech to the Pacific and Asian Affairs Council in Honolulu, *Korea Times*, Jan. 19, 1986.



를 억제하는 것이며, 소련과 우호적으로 對抗聯合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이지역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정치적 존재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성취하는데 있어, 북한이 배제될 수는 없다.

소련과 북한의 關係增進은 한국과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많은 畧意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畧意에 의해서 북한의 軍事的 能力과 經濟가 증진되었으며 보다 활동적인 소련의 役割도 증진되었다.

평양과 「모스크바」간의 協力은 소련의상 「셰바르나제」(Eduard Shevardnadze)가 1986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북한 방문에 이어 나온 共同聲明에 의해 증명되었다.<sup>(37)</sup> 그들은, 군사적 측면의 관계를 강조해온 “協力과 相互援助”라는 기본조약을 근거로하여, 여러 방면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합의하였다.

2년전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한후로 북한은 이웃한 중국과의 유대, 특히 군사적 측면의 연대를 희생하면서도 소련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밀착되고 있다.

소련은 북한의 領空通過權과 항구사용의 허가에 대한 報償으로, MIG-23 전투기로부터 SH-3 지대공 「미사일」에 이르는 북한에의 정밀 무기 공급을 증가시켜왔다. 최근에 「모스크바」는 북한에 核工場을 건설해줄기로 畧意하였다.

극동에서 소련 對外政策이 도발적인 북한과의 우호관계유지로 전환함에 따라, 이것은 한국의 安穩에 더욱 壓力을 줄 것이다. 이 결과로 한국의 同盟國은 對抗力과 抑止力을 증대시킬 필요가 증대될 것이다.<sup>(38)</sup>

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와 정치국원인 姜成山이 「모스크바」에서 2월 25일 열린 제27차 소련 共産黨大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소련이 정치적 목적의 강화를 위해서 동아시아에서 軍事的 役割을 증대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식 북한이 1950년 한국전의 도발에 의해서 달성하려 했던 全韓半島의 공산화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sup>(39)</sup>

북한에 의한 재침략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1953년 板門店에서 締結된 休戰協定이 모든 전투행위를 정지시켰지만, 韓半島에는 여전히 準戰爭狀態가 존재하고 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은 실존한다. 북한은 7일전쟁구상을 발전시켰고, 소련으로부터 새로운 무기와 군사 협력을 받고있다”<sup>(40)</sup>고 말하였다.

全斗煥: 대통령은 또한 중공이 한반도에서 온건한 役割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대통령은 중공이 이 지역에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기를 희

(37) *The Korea Times*, Editorial: “P'yang-Moscow Collaboration”, January 23, 1986.

(38) *The Korea Herald*, Editorial: “Moscow P'yang Comradeship”, January 25, 1986.

(39) *The Korea Herald*, Editorial: “Kim Jong-Il's Moscow Call”, Feb. 12, 1986.

(40) *The Korea Herald*, January 29, 1986. Originally, there had been speculation that Kim Jong-il would lead the North Korean delegation to Moscow and use the occasion to obtain official recognition from the Kremlin of his status as successor to his father, Kim Il-sung.

망했다. 그러나 평양은 南北對話가 남한혁명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동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30만 군대를 동시에 動員함으로써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41) 일본의 軍事雜誌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에 대한 기습공격 초기에 「탱크」부대를 전면에 배치한 10개이상의 사단을 戰鬪地域에 배치할 수 있으며, 또한 선제공격에 뒤이어서 매우 짧은 시간안에 補強部隊의 편성이 뒤따를 것이라 한다. 서울은 武裝地帶의 북쪽에 배치된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내에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의 연례 군사훈련이 진행중인 때에, 육군을 1986년 2월 10일에 완전히 출동준비를 시켜 놓았다. (42) 북한군의 총사령관인 金日成은 定規·非定規軍에게, 혁명수행능력을 提高하고 전쟁 動員 준비를 강화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한반도의 安保는 韓·美防衛關係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1년 이후 한반도내에 美軍事력이 강화되었고, 한국 군사력 증대에 관한 援助가 증대되었다. 미국은 F-16전투기, A-10 지상원조항공기를 포함한 군사지원을 한국에 투입하였다. 한국에 대한 대의원조차관은 1980년 1억 3천 9백만 「달러」에서 1984년 2억 3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43) 또한 1986년에는 2억3천 2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44) 미국과 한국은 軍事訓練, 즉 「팀스피릿」훈련을 강화하였다. (45) 韓·美防衛關係는, 소련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장래에 개선된다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소련과의 관계 正常化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스크바」가 한국의 提案에 긍정적 반응을 한다면, 한국정부는 지역방위역할을 담당하거나 美國이 地域防衛目的을 위하여 한국영토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韓·美防衛關係는 전체관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방위 결정은 전체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防衛協力과 미래의 防衛計劃에 관한 決定은 남한 安保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성격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46)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남·북한간에 勢力均衡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단일 美·蘇가 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에 비중을 둔다면, 그것은 미·소의 상호관계에 보다 호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Japan Military Review*, March 1986.

(42) 내외통신. 1986. 2. 10. *Korea Times*, Feb. 11, 1986.

(43) Larry A. Niksch, "ROK-U.S. Defense Relation Future Problems,"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of Korea and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of the Univ. of California, December 16-18, 1985, at Seoul, pp. 1-2.

(44) *The Korea Herald*, Feb. 21, 1986.

(45) "Team Spirits" since 1976, in order to thwart any possible north Korean aggression upon the south, Feb. 10, 1986,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suspend all planned inter-Korean talks in protest against "Team Spirits '86" exercise, which began on Feb. 10, 1986. *The Korea Herald*, Feb. 13, 1986.

(46) Niksch "ROK-U.S. Defense Relations", *op. cit.*, pp. 10-11.

## VI. 結 論

한국의 비극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의 超強大國間의 權力鬭爭에서 비롯되었고, 북한과 남한에는 非武裝地帶에 가장 중무장이 잘 된 百수십만 대군이 對峙해 있다.

북한은 1961년 이래 소련·중국과 軍事援助條約을 맺어왔고, 남한은 1953년 이래 美國과 防衛條約을 맺어왔다.

韓半島는 아시아에서 불안정한 지역이었고, 국가간의 군사적인 不均衡이 존재하는 한 이 지역의 戰略上的 均衡유지를 위한 美軍의 주둔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과거 21년간 소련은 동아시아에 확고한 軍事的 增強을 꾀해왔다. 이 증강에 기초하여, 소련은 최근 이 지역에 적극적인 政治的 影響力을 행사해 왔고, 명백하게 영향력의 증대를 기도하고 있다. 북한은 지정학적인 위치때문에 소련의 표적이 되어왔다.

평양과 「모스크바」의 비밀군사협약은 “소련 군함의 북한 항구에의 잦은 정박”과 “소련의 北韓領空의 경찰비행”에서 입증되었다.

북한이 시도하는 기술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한국정부는 “조기경보체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은 북한의 화학전을 위해 증가하는 군비에 대항하여 완전한 방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북한은 대량의 化學戰을 위한 무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7)</sup>

평양과 「모스크바」의 態度는 全韓半島를 共產化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東아시아에서의 軍事的 影響力의 增大를 꾀하려는 점에서 일치된다. 또한 북한은 소련의 원조하에, 攻擊能力을 增強시켜 “7日戰爭”을 구상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sup>(48)</sup>

반면에 中國은 평양에 은근한 영향력을 행사해올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이지역에서의 재난방지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軍事화된 地域의 하나인 한반도에서의 軍事力의 均衡은 한반도 주위의 여러 나라에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다. 유감스럽게도 北韓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소련의 軍事協力の 강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모험적인 북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의 소련의 극동에서의 外交政策의 變化는 한반도에서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적 요소가 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한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대항력과 역지력을 강화하기 될 것이다.

四強사이에 한반도에서의 保障協定이 체결된다면, 그것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고

(47) *The Korea Herald*, Feb. 4, 1986.

(48) *The Korea Herald*, Jan. 30, 1986.

남북한 대화를 계속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강의 보장제외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따라서 이를 대신한 다른 대안은 남북한과 四強사이의 “交叉外交正常化(cross diplomatic normalization)”란 개념이다.

남한의 상위를 위한 미국의 公約의 준수는 북한의 침략을 방지하고, 現狀維持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에서의 緊張緩和의 유일한 方法은 남북대화를 계속하는 것과 가능한 빨리 남북한 최고당국자의 會談을 여는 것이다. In K. Hwang 교수가 1980년에 한국의 중립국으로서의 통일에 관한 이론을 제의했다.<sup>(49)</sup> 이 이론은 북한과 남한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까닭에 그것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근래에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양측이 통일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남·북한은 상대방의 接近方法을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양측 모두 자신의 統一政策이 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外交的 宣傳에 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양자가 서로 상이한 논리구조를 취하면서, 조금도 상호양보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統一問題를 政治的 口實化하려는 경향만 노정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美國務長官 「조지 숄츠」가 언명한 바와같이 향후 3년간에 한반도에서 특히 증대하며, 남·북한 사이 政權移讓問題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양측은 軍事的 對峙를 완화시키고 남·북대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군사대치의 완화는 방위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sup>(50)</sup> 이는 복지증진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平和統一의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이 존재하는 범위내에서 한국의 국토분단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선의의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49) In K. Hwang, *The Neutralized Unification of Korea in Perspective*, Cambridge,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Inc., 1980, pp.1-186.

(50) 남북간의 방위비 비율  
남한 : 25.8% (\$4.402bn)  
북한 : 31% (\$4.196bn)

출처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sia Year Book 1985*, Hong Kong.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85~1986*, London, pp.126-128.